

# 잠녀, 선택한 바다 삶의 아름다움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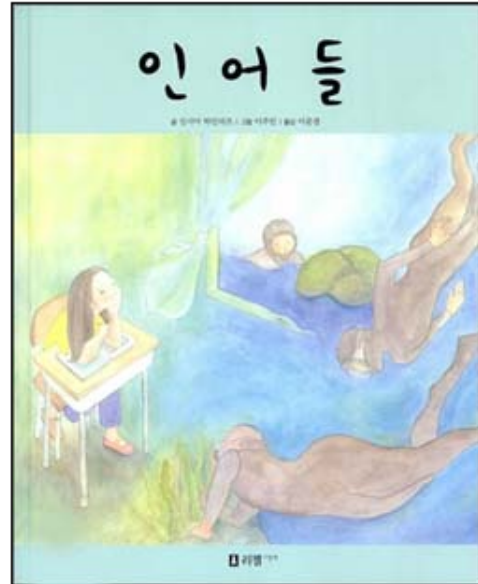
신시아 하인리츠 「인어들」

등록 : 2011년 08월 26일 (금) 15:37:48  
최종수정 : 2011년 08월 26일 (금) 15:37:4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섬 밖의 눈에서 '잠녀'는 신기한 대상에 불과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놀라운 기능을 지닌, 그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작업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검은 잠수복 아래 가려져 있던 조수를 닮은 깊은 주름과 세월을 이기지 못해 허영게 뿌리를 드러내는 머리카락, 오랜 시간 반복해서 고된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손가락과 끈질기게 살아있음을 괴롭히는 두통까지 그녀들이 품은 것들은 쉽게 정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에서 영어·작문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시아 하인리츠가 읽어낸 잠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나 대충 주워들은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 보기 힘들 만큼 섬세하다.



주변의 반대에도 해녀가 돼서 바다 속 용왕을 만나고 싶은 소녀 '재현'이를 주인공을 제주 잠녀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짚어간다. 힘든 물질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와 할머니를 피해 몰래 숨어 긴 숨비 소리를 배워가던 재현이가 무연히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구해낸다. "따라 오렴", 책 말미 엄마의 이 한마디는 노령화 등으로 시나브로 사라져가는 '제주 잠녀'가 하고 싶은 말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제주 잠녀들 사이에 내려오는 '만행이 할머니'라는 전설을 모티브로 했다. '만행이 할머니'는 작업중 물숨을 먹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을 놓으려던 찰나 늦잠지를 따라 갔다 아직 이승에서의 삶이 남았다는 말에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다.

찬찬히 가슴높이에서 잠녀를 살피던 저자는 강인함과 부지런함의 대상에서 어느새 사라져가는 그녀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현'이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 그녀의 눈에 잠녀들은 '인어'다. 육지와 바다 어느 한 곳만 선택해야 했던 동화 속 '인어'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있을 곳을 고르는, 운이 좋은 '인어'다.

하지만 "제주의 인어, 해녀가 기억 속으로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노파심에 달콤 씁사름한 글을 썼다. '모든 곳의 인어들을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표현에 파스텔톤 삽화가 잘 어울린다. 리젼 그림책, 1만1000원,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